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연중 제15주일 2016.7.10.(다해) 제2006호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ubo.or.kr>



성토마스성당 제대 <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오늘의 전례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루카 10,29)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도 잘 알고 있지요. 문제는 실천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직접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푸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지 따지기보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오늘 당장 사랑을 실천합니다.

제1독서 신명 30,10-14


제2독서 콜로 1,15-20

복음 루카 10,2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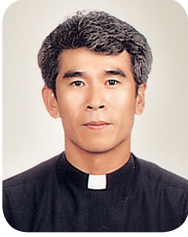
입당송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흡족하리이다.

화답송 ◎ 가난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영성체송 주님,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답게**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이웃을 위해 기호품(커피, 술, 담배 등)을 절제하겠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되기

김성일 모세 신부 | 용계본당 주임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동네에 거지들이 많았고, 때가 되면 동냥하러 오는 걸인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 가끔씩 식사 때가 되면 동냥을 하러 오는 걸인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그 사람에게 식사를 차려 주시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남의 집 한 곁에서 셋방살이 하는 우리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그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비단 우리 어머니만이 아니라 그 무렵 어렵게 살던 모든 서민들이 또한 그렇게 하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굶고 있는 그들에게 밥 한 끼 챙겨주는 것이 거창한 나눔이니, 사랑의 실천이니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인정상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를 살던 대부분의 서민들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로워진 오늘날 오히려 어머니 세대 때 같은 사마리아인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 정이 없어서라든지 사랑을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모두가 이런저런 것들을 염두에 두며 망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시간이 없어서’, 혹은 ‘돕는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등의 망설임이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보고 느낀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망설이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사랑의 실천은 입으로만 해서도 안 되고, 가슴의 느낌으로 끝나서도 안되며, 실천하는데 망설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망설임 없이 다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 청하며, 우리 모두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필문**



가정, 가장 작은 교회

아버지, 당신은 가정의 수호자입니다

강영목 요한보스코 신부 | 교구 가정담당

“아버지, 당신은 가정의 수호자입니다.” 이 말은 현재 교구에서 진행하는 가정사목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성요셉아버지학교의 표어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위치는 당연히 이 표어처럼 가정을 지키는 수호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이 표어가 더욱 절실하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또 절박해야만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존재감의 상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치가 점점 더 없어져 간다는 느낌을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문화적인 이유에서 본다면, 이는 권위적인 사회에서 소통을 강조하는 사회로 접어들면서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가족들이 따르는 모습들은 점점 없어져 가고, 또한 남녀평등, 똑같은 가정 안에서의 가사분담에 대한 책임 등 여성의 사회 진출의 증가로 인해 아버지의 역할이 단순히 과거의 경제적 부양에만 머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아버지는 친구가 되어야 하고, 교육자가 되기도 해야 하며, 가정의 모범이자 모델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 속에서 어떤 아버지들은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찾기보다 가정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거나 가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에 2007년부터 시작된 교구의 성요셉아버지학교는 단순히 학교라는 명칭에서 오는 느낌

에서 수업을 받고 강의를 듣고 교육받는 곳이 아니라,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서의 아버지, 곧 성요셉을 닮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되도록 스스로 체험하고 느끼는 기회의 장(場)입니다. 물론 성요셉아버지학교는 이러한 가정 안의 문제점을 단순히 해결해주는 요술 주머니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아내와 자녀들의 생각을 듣고, 내가 가정 안에서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재발견하는 소중한 경험의 시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로써 가정 안에 가장 먼저 아버지가 해야 할 역할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 안에 ‘머물 수 있기’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에게 ‘머무를 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우선되는 자세입니다. 하느님께 머무르기, 말씀에 머무르기, 내 삶 안에 머무르기... 이 모든 노력은 나를 다시 돌아보고 나의 주변을 새로운 눈과 마음으로 보게 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성가정을 곳곳이 지켜낸 성요셉과 같이 믿음 안에 더욱 성숙해지는 울 한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성요셉을 닮아가려는 교구의 모든 아버지를 응원하며 함께 더 좋은 성가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당장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아내에게 시간을 내고 마음을 여는 머무르기 연습을 실천하는 것에서 출발하면 어떨까요? **필문**





“빨리 빨리 좀 삽시다.” “뭐가 그리 급하세요?”

마석진 프란치스코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요즘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빨리 빨리 합시다.”입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이뿐만 아니라, 운전 또한 그렇습니다. 모두가 무엇에 쫓기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다들 여유를 찾고 싶어하지만 정작 삶에서 작은 여유를 찾기보다는 그 여유를 갖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 성격이 참 급한 편이고, 그래서인지 말도 빨리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성격 급한 제가 볼리비아에 가서 답답한 것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보려면 만나 절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한번은 우편물을 찾으러 우체국에 갔는데 직원들이 자기들 차마시고 간식 먹는 시간이라 기다리라고 해서 10분 넘게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후진국이지.’ ‘서비스 사업이 너무 잘 되어 있지 않아.’ 예, 맞습니다. 정말 서비스 부분은 최악입니다. 사람들은 신분증을 갱신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하고 실컷 줄을 서서 기다려도 일을 다 못하고 다음날 다시 와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느긋함이 사실 좀 부러웠습니다. 제가 본당에서 약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사제관에서 살았는데, 혹 비가 많이 와서 성당으로 가는 길에 차가 빠져 버리면 참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본당에서 미사를 하고 다른 곳에도 가서 미사를 해야 하는데 차가 길에 빠져버리면 큰일입니다. 어느날 길에 빠진 차를 빼느라 미사 시간에 늦게 도착한 적이 있습

니다. 제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 신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늦었다고 뭐라 하지 않고, 수고했다고, 도착했으니 미사 시작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한번은 시골에 미사 갔다 다른 시골 공소 가는 길에 차가 빠져 1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지만, 신자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어서 참 고마웠습니다. 물론 신자들도 미사 시간에 맞추어 오기 보다는 늦기가 다반사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참 민감합니다. 맞습니다. 늦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열심히, 빨리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그렇게 ‘빨리 빨리’를 외치며 사는 걸까요? 좀 더 여유 있게, 남의 늦음을 이해해 주고, 나의 늦음을 사과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인내를 가지고 항상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도 인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 주면 어떨까요? “너는 왜 빨리 못하니?” 라는 말보다 “괜찮아, 천천히 해, 기다릴게.”라는 말이 더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분명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한정되어 있고 시간은 소중한기에 서둘러야 하고, 해야할 일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천천히, 여유 있게 생각할 때 이루어 집니다.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한번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말씀해 보세요. “천천히 해. 내가 기다리면 되지 뭐.” **필문**

교황님 이야기

역사 속 위대한 교황 I

인노첸시오 3세(1198~1216)



제176대 교황이자 중세기 가장 위대한 교황 중 한 분으로 인정받는 인노첸시오 3세 교황은 세속 정치에 깊이 관여하며 교황권을 중세 국가와 권력의 중요 핵심으로 만든 인물

입니다. 그분의 가장 큰 치적은 1215년 개최한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로, 이를 통해 교회의 광범위한 조직과 제도를 쇄신했습니다. 교회법에 정통했던 인노첸시오 3세 교황은 많은 법령들을 반포했으며 6000여 통의 서한을 보냈고 교회법 연구를 장려했습니다. 발트지역에 선교사를 파견하여 전교에도 힘을 썼으며, 특히 성도미니코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게 순회 설교가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렸습니다.

비오 9세(1846~1878)

제255대 교황인 비오 9세 교황은 박해상황의 조선교회를 배려하고 1857년 조선의 순교자 82명을 가경자로 선포하는 등 한 국교회와도 깊은 인연을 맺은 교황입니다. 비오 9세 교황은 ‘제1차 바티칸 공의



회’를 개최하고 교황의 수위권과 무류성이라는 두 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공의회를 세계사와 교회사에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시킨 인물입니다. 비록 격변기 사회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상의 도전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세속권의 상실로 교황권이 치욕스런 국면을 맞는 시기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제1차 바티칸 공의회 등을 통해 19세기 재임 교황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레오 13세(1878~1903)

제256대 교황이며 사회문제에 관한 회칙 ‘노동현장’(Rerum Novarum)으로 유명한 레오 13세 교황은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운동에 가장 강력한 자극을 준 교황입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친 재




위기간 25년은 교황으로서 가장 의미 있는 업적을 남긴 기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예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2개의 칙서를 발표했으며 1881년에는 바티칸 문서고를 열어 사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고, 1902년에는 교황청 성서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레오 13세 교황의 치적은 외교 분야에서 두드러지는데 정치 외교적으로 능란한 수완을 보인 교황은 동방교회와 슬라브교회의 일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교구 행사

■ 천부성당 본당설립 50주년 기념 새성전 봉헌미사 및 영성센터 축복식




천부성당 본당설립 50주년 기념 새성전 봉헌미사와 영성센터 축복식이 6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박현동(블라시오) 아빠스와 19명의 교구 사제단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장신호 요한보스코 보좌주교 서품식

2016년 7월 12일(화) 오후 2시

주교좌 범어대성당



- 당일 일대 교통이 많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범어대성당 입장은 서품식 시작 2시간 전인 12:00부터 가능하며 이전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 입장권을 소지한 신자들은 대리구별 지정 구역(색상)을 찾아 입장하시면 됩니다.(입장권 뒷면 좌석배치도 참조)
- 입장권이 없는 신자들은 범어대성당 내 프란치스코성당과 드망즈홀 등에서 모니터를 통해 미사 참례가 가능합니다.

방송안내

- 실황중계 : **BC 평화방송 TV** 케이블 CH, **BC 대구평화방송 FM** 라디오 93.1MHz
- 녹화중계 : **BC 평화방송 TV** 케이블 CH 7월 12일(화) 22:00 / 7월 17일(일) 14:00



미사안내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11일(월) 10:30 범어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11일(월) 11:00 계산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7월 11일(월) 11:00 황성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11일(월) 11:00 월성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11일(월) 11:00 신평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7월 16일(토) 10:00 월성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7월 11일(월) 11:00 죽도성당	프란치스칸을 위한 후원미사	7월 16일(토) 15:00 프란치스카눔

성소 | 피정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매월 셋째주(토) 14:00

장소: 서울 개화동 수도원

문의: (010)3800-1579

빈마음 성소 모임

일시: 7.17(일) 14:00, 수원 본원

주최: 성빈센트드뿔자비의수녀회

문의: (010)8833-8107

살레시오회 여름 성소 피정

기간: 7.23(토)~24(일)

장소: 충남 태안 내리 피정센터

대상: 30세 미만 미혼 남성

참가비: 3만원

문의: (010)3894-1332 / (010)9487-9182

성심교육관 2박 3일 무료 피정

기간: 7.15(금) 23:00~17(일) 15:00

장소: 성심교육관, (031)262-7600

출발: 시민회관 16:00

주최: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문의: 이카타리나, (010)4515-1114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기간: 7.16(토) 11:00~17(일) 16:00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회비: 5만원(어린이 동반금지)

문의: 음성꽃동네,

(010)5490-5345

교육 | 모집 | 기타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2박 3일: 8.5(금) 17:30~7(일)

4박 5일: 7.15(금) 14:00~19(화)

8박 9일: 8.15(월) 14:00~23(화)

에니어그램: 8.12(금) 15:00~14(일)

문의: (031)946-2337~8

말씀으로 마음치유(독서치료)

일자: 9월부터 매주(금) 10주간

시간: 19:00~21:00 / 무료

장소: 남산동 성바오로서원

대상: 남·녀(30대~50대 신자)

문의: 성바오로수도회, 256-4592

제13회 가톨릭 대안 좋은학교 연수

기간: 7.23(토)~24(일) 1박 2일

장소: 양업고등학교

대상: 좋은학교에 관심있는 학부모

신청: 7.13(수) 10:00(홈페이지)

2017학년도 신입생입학안내 있음

27차 대구청소년수련원 필리핀 영어연수

모집: 청소년영어캠프, 부모동반연수,

대학생 영어연수·해외봉사

지역: 필리핀 바콜로드 대학부설센터

출발: 청소년가족(1차 7.19 2차 7.23)

대학생(2차 8.28) / 문의: 593-1273

제48차 아일랜드·영국 영어연수

초등: 7.22(금)~8.11(목)

중·고등: 7.21(목)~8.11(목)

세계 학생들과 함께 연수

안전과 다양한 경험 제공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자율형사립고 대건고 2017 입학설명회

인성 등업, 학력 등업, 대건 등업

1차: 7.16(토) 14:00, 대건고 안드레아관

2차: 10.15(토) 14:00, 대건고 안드레아관

문의: 입학홍보실, 235-4560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9월 정규 입학 모집

기간: 단기, 장기

대상: 초4~중3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문의: (02)2258-8983

www.oakinternational.co.kr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삼성화학건설
방수공사 / 페인트칠
신자 10% 할인
대표번호 1577-2279
김원(토마스) 010-5623-9001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010-3818-0818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 우체국 옆, 교대역 3번 출구
권 중 문(파비올라)

통합의료진총원
전인병원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료합니다
진료 과목 일반외과, 혈액종양내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한방내과
병원장 손기철(메트로 다미아노) 신부
대표전화 053)670-600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입구

백두정형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배영두 아오스딩
배상근 베드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T. 425-5919
아개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상운(안젤로)
송경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박의현 구심내과 의원
서정의 피부과
Dermatologist Dr. Suh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www.piumclinic.co.kr
이애현 피음산부인과 월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 여성 성형, 비만클리닉
보함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요실금클리닉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

행사 | 모임

예비신학교 하계 사제 성소 피정

중1~중2: 8.1(월)~3(수), 청통수련원
 중3~고2: 8.3(수)~5(금), 청통수련원
 고3·대학·일반: 7.19(화)~21(목), 한티
 참가자격: 예비신학교 등록생
 신청: 각 본당 사무실 / 마감: 7.10(일)

대구평화방송 개국20주년 기념

모나코 왕실 소년합창단 초청음악회

일시: 7.13(수) 20:00, 3만원 / 2만원
 장소: 대구콘서트하우스(구. 시민회관)
 예매: 티켓링크, 지원클래식 656-4732
 문의: 대구평화방송, 251-2610

교육 | 모집

시니어 평생대학 봉사자 프로그램 연수

기간: 8.8(월)~29(월) 3주, 매주(월)
 장소: 대구 교구청 교육원 나동
 마감: 8.1(월) / 참가비: 3만원
 문의: 교구 노인사목담당, 250-3077

7월 가나강좌

일시: 7.17(일) 10:00~17:30(시간엄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마리아관
 참가비: 1인 2만원(당일 접수) 무료주차
 문의: 교구 가정담당, 250-3114

대구대교구본당사회복지협의회

25주년 역사사진 찾기

대상: 본당 내 복지활동 사진(1991년

~2008년) / 마감: 7.31(일)
 문의: 교구사회복지회, 253-9991
 사진 제출자 소정의 상품지급 예정

시편성가, 발성법 연수

일시: 7.10(일) 15:00
 회비: 1만원
 지도: 김정선 수녀, 박재연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대구ME주말_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343차 ME주말: 7.29(금) 19:00~31(일)
 344차 ME주말: 8.12(금) 19:00~14(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부부는 작은 교회입니다.

한중친선협회 회원 모집

동아리(중국어 / 성경, 성가, 회화 등)
 월례회(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친교)
 중국 / 성지순례, 문화탐방, 여행활동
 대상: 중국에 관심있는 모든 신자
 문의: (010)2662-1560

매일가든 입주업체 모집

모집: 매일빌딩 11층 매일가든
 우대조건: 뷔페 및 식당 유경험자
 마감: 7.22(금)
 문의: 매일빌딩 관리실, 251-1680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여름진학캠프

기간: 7.26(화)~28(목) 2박 3일

대상: 본교에 관심있는 초6~중2
 문의: (054)338-0530
<http://sanjayeon.school.gyo6.net>

대가대 차이나포럼 제24기 원우 모집

개강: 9.26(월) 19:00(현재 접수중)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석식,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수업료: 100만원(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일자: 10.10(월) 발칸반도 성지순례
 경비: 375만원(11박 12일)
 일자: 10.17(월)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
 경비: 375만원(11박 12일)
 문의: (02)2281-9070 / www.cttour.org

채용 | 안내

대구가톨릭대병원 검진센터 이전 오픈

새롭게 단장한 종합검진센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진 실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위치: 암센터·장기이식센터 5층
 문의: 650-4114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박은주
 문의: 253-9550

천연염색공방 풀라빛
<http://www.풀라빛.com>
 • 의류 · 침구류 · 소품
 • 염색원단 · 감물 · 혼수품
 색의 연구가 이 명숙 (루실라)
 Mobile : 010-9350-4922
 경북 청도군 화암읍 유등리 730번지

밝은귀보청기
 세계 1~5위 미국 · 덴마크 · 독일 보청기
 서문점 동인점
 김은연 세실리아 최준우 미카엘
 ☎ 053)257-8588 ☎ 053)421-8588
 NAVER 밝은귀보청기 검색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센터 03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흠(요한)
 T. 630-8000 승현역 2번 출구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피타미병원 신경정신과 과정 역임
 대학수면의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학박사 대한상담치료학회회 회장 역임
 피타미병원-평화시장 사이
 (궁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자기주도학습전문
방학특강 · 공부방법
UP학습코칭 · 논술
 윤종선 (가필로)
 ☎ 053)752-0966 범어동 KBS앞
 NAVER 대구UP학습코칭 검색

3레벨 이어온 경옥고 명가
약령시사람들
 ◎ 선물용 경옥고 제품 ◎ 공진단
 ◎ 경옥고(젤류, 환, 차, 팩, 삼푸 등)
 ◎ 홍삼제품 ※교우 특별 할인
 양대식(안토니오) 010-3528-8008
 ☎ 1644-8807, (053)428-8002
www.약령시사람들.com (약령시장 내)